

사회

‘방과 후 학교’도 못말리는 사교육 열풍

고교생들 “방학이 더 괴로워”

학교로... 학원으로... 학부모 부담도 눈덩이

방과 후 학교 수업 질 높일 프로그램 절실

“방학이요? 차라리 고등학생은 방학을 없앴으면 합니다.”

최근 만난 광주 A고교 1학년 유모군은 “겨울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방학하면 ‘휴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학기 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큰 탓이다.

유군의 요즘 하루일과는 이렇다. 유군은 매주(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보충수업)’에 참여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다섯 과목 수업을 듣는다. 이후 오후 6시까지 는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유군의 하루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과 후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향한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이 학기 중 수업내용과 별다른 차별없이 진행돼 만족도가 떨어진다든 게 그 이유다.

유군이 학원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영어와 수학 등 2개 과목을 더 듣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는다.

유군의 방학동안 교육비는 방과 후 수업료 18만원에다 2개월 학원비 100만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비, 교재비 등을 합하면 200만원에 육박한다.

육박한다.

유군은 “학기 중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학교수업에 전념하면 되지만, 방학때는 방과 후 학교는 기본이고, 학원에 다녀야 한다”면서 “반 친구들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는 탓에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고교 1, 2학년 자녀 2명을 둔 학부모 오모(여·46)씨는 “방학만 되면 생활비 압박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방학동안 두 자녀에게 지출되는 방과 후 수업료와 사교육비 등 교육비만 3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오씨는 “방학때 쓸 교육비를 위해 평소엔 적금까지 넣고 있다”면서 “차라리 방학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겨울방학동안 공교육과 사교육을 오가며 녹초가 되고 있다. 학부모들도 양쪽의 교육비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학교에서 방학 중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중이지만, 과열된 사교육 열풍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올 겨울방학동안 광주지역 47개 인문계 고교에서 학교당 100~

180시간씩 방과 후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이다.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탓에 시간당 수업료는 1천원 안팎으로, 학생 1인당 10만~18만원 정도를 수업비로 내고 있다. 참가율은 각 고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생 등을 제외하고, 80~90% 수준이다.

각 고교들은 이 같은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 열풍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교 1학년생인 심모군은 “방과 후 수업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만큼 다른 학생보다 앞서기 위해선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과 후 수업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 학원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고교생에 한해 방학을 없애고, 정규수업을 하는 게 더 나을 듯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지원을 통해 방과 후 학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학생의 수업료만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정규 수업에 지쳐있는 학교 교사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외부 감사 초청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단체 “이전 화합”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단체통합과 5·18 30주년 특별기획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사)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 3천여 명의 회원이 단체간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광 금은방 강도 2억대 훔쳐

20~30대 남성 3인조

영광읍 내 시가지 금은방에서 2억대 3인조 강도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오후 6시15분경 영광군 영광읍 B금은방에 20~30대로 보이는 남

성 3명이 침입, 주인 A(69)씨의 눈을 가리고 양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시가 2억7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고에 있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TV를 시청하던 중인데, 갑자기 20~30대 남성 3명이 들어와 눈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귀금속 등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가지 금은방을 수 분 만에 터는 등 대담한 수법으로 미뤄 동일수법 전과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종 전과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8일에는 보성의 한 금은방에 괴한이 침입해 시가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6촌 간 땅 다툼에 공기총 ‘탕’

21일 영암 가정집 공기총 사건... 총기허가 강화 시급

지난 21일 영암에서 발생한 ‘가정집 공기총 격발’ 사건(본보 23일자 3면)은 평소 땅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던 6촌동생이 화합에 지치지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경찰은 24일 화합에 6촌형(55)의 집을 향해 공기총을 쏜 송모(43)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찰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촌형의 조립식 주택 주방 유리창에 구경 5.0mm 공기총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삼호공단 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기름배달용 2.5t 트럭을 타고 6촌형 집으로 가 주방 유리창 전방 36.5m 지점에서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6촌형은 병원 치료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송씨가 수년째 6촌형과 땅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목포 경찰서에서 총기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기총 소유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사건 현장에서 50m 가량 떨어진 삼호읍 원용당 사거리 CC-TV에 찍힌 송씨의 기름배달 차량을 토대로 송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편 현행 총포도검약류단속법은 병원 진단서와 간단한 신고 서류만으로도 공기총을 소지할 수 있어 총기허가 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기총은 수업기간이 아닌 경우 구경 5.5mm 이상만 경찰서에 보관토록 하고 있어 규정에서 제외되

는 구경 5.0mm, 4.5mm 총기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이성휴기자 lsh@

20억대 양주 빼들려 판매

광주경찰, 업체 간부 영장

광주경찰은 24일 주류창고에 보관된 양주를 빼들려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L음료업체 주류사업부 광주 지점 박모(35) 과장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원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를 목인한 창고관리자 김모(33)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광산구 주류창고에서 78회에 걸쳐 20억원(도매가) 상당의 양주를 빼들린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

나원침 (8013) 김장두



美 수능시험지 유출 감사 영장

서울 수사경찰은 미국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들린 혐의(업무상 해 등)로 강남지역 SAT 전문학원 강사 장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쌀을 세탁기에’ 옛 동거남 황당 보복

○자신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 쌀을 세탁기에 쏟아붓는 등 황당한 보복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4일 결별한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집안을 마구 어지럽힌 원모(22)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정모(25)씨의 원룸에 들어가 외투를 가위로 자르고, 쌀을 세탁기에 부어 17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휴대전화까지 들고 나갔다는 것.

○원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한 달 전에 헤어진 뒤에도 ‘새 여자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귀찮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해경 간부가 음주사고 후 도주

여수경찰은 24일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개인택시를 친 뒤 도주한 여수해경 소속 양모(54)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찰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경위는 지난 22일 밤 9시20분께 여수시 신월동 J수협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칙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장모(53)씨의 개인택시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회식비로 썼더라도 뇌물은 뇌물”

법원 “공무원 파면 마땅”

건설업자에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이 대부분의 돈을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 판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황성균청 공무원 A(44·지방 6급) 씨가 황성균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다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 이용방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황성 수해복구 공사의 감리업체와 시공사 현장 소장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86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처분을 받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a health produc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 The text includes '사람의 건강으로 큰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 and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